

도요타시 미술관: 도지엔

도지엔의 다실은 도요타시 미술관의 본관에서 떨어진 곳에 있으며, 옆에 있는 조각 테라스와의 경계에 높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식 없는 네모난 창문이 달린 목조 단층 건물은 주변의 모더니즘 건축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도지엔은 다른 미술관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다니구치 요시오(1937년생)가 설계했습니다. 다니구치 씨는 미니멀리즘, 군더더기 없는 선, 유연하고 기능적인 공간 등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과 근대 건축의 공통점을 표현하기 위해 이 도지엔을 설계했습니다.

맹장지 문과 기와지붕, 정원 등은 모두 전통 다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다실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유리로 된 창문이 있으며, 이 창문은 한적한 이끼 정원의 경관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다실은 방문객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말차와 달콤한 전통 계절 화과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는 손님이 다다미에 무릎을 꿇고 앉는 방식이 아니라, 테이블에서 의자에 앉아 마시는 입례식이라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바닥에 앉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다도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전통 다다미 다실도 있지만, 다도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실 바로 밖의 정원에는 다도회 전에 손을 씻기 위한 세면대 '쓰쿠바이'가 있습니다. 쓰쿠바이 옆에는 '스이킨쿠쓰(水琴窟)'라는 물을 사용하는 숨은 장치가 있습니다. 윗부분에 구멍이 난 항아리를 세면대 근처에 묻어, 사람이 손을 씻으면 물이 흠에 스며들어 그 아래에 있는 항아리 속으로 천천히 떨어집니다. 물방울이 땅속에 묻힌 항아리로 떨어지면 선율이 울려 땅 위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